

한국청년불교 재도약 다진다

대불련 창립40돌...각종행사 벌여

한국 청년불교 운동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종찬, 이하 대불련)와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성기태, 총주대 총장)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 1600년 대화와 전국 총동문대회를 통해 한국 청년불교의 중흥과 재도약을 모색한다.

우선 대불련은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사흘간 강원대학교와 춘천 일대에서 '제22차 한국불교 1600년 여름대회'를 개최한다. '대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삶, 평화로운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티베트 초벌 스님과 함께 하는 일상에서의 수행, <야생초편지>

총동문회 전국 총동문회·대학생 포교기금 후원

대불련 31~8월3일 한국불교 1600년 여름대회

저자 황대련 선생과의 대화, 춘천 평사에서의 숲 해설가들과 함께 떠나는 생태기행, 생태와 전쟁을 테마로 한 '야의 갤러리' 등이 진행된다. (02)732-0239

대불련 총동문회도 8월9-10일 이틀간 속리산 법주사에서 동문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총동문대회'를 연다. '대불련의 화합과 정진'을 기치로 내건 총동문대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법어, 관음종 총무원장 홍과 스님의 대불련 삼대강령제창, 이원종 총북지사의 축사 등으로 진행된다. 또 강원지부의 난타공연, 산사음악회, 뜻깊은 마음대동제 등의 프로그램도 곁들여진다. 특히 대회에서는 '한국불교와 인류의 보편윤리'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마련된다. 심포지엄은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의 사회로 송석구

동국대 전 총장이 주제발표를, 박세일 전 서울대 교수, 성태용 건국대 교수, 김복순 동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011-9119-2954

특히 총동문회는 대회에서 대불련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포교기금 마련, 후원회 결성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대불련 총동문회 강대진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문 모임을 재결집하고,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대불련과 총동문회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한국청년 불교중흥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꽃꽃축제에서 환호하는 파라미타 국제캠프 참가자들.

파라미타 국제캠프 성료

중국 등지서 1500명 참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원택)는 22-25일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고성군 알프스리조트에서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찬 세상'이라는 주제로 제 6회 파라미타청소년 국제캠프를 개최했다.

전국의 파라미타 청소년 불자와 파키스탄,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의 청소년을 포함해 1500여명이 동참한 이번 국제캠프는 건봉사 참배, 문화제 애호활동, 천불 조성 행화그리기, 염주만들기 사물, 잔디썰매, 수영, 골프, 리프트 타기, 산행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원택스님은 "이번 캠프가 청소년들에게 자아의 소중함을 일깨워 호연지기를 기르고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신촌, 성남, 문정, 수지, 구산,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택시
1588-5532

영동 영국사 후불탱 '영산회상도'

도난 당한지 12년만에 제자리에

12년 전 도난당했던 조선 속종 때의 보물급 후불탱화 한 점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서울지방 형사합수1부는 9년 11월 충북 영동군 영국사 대웅전에서 도난당했던 '영산회상도'를 구입한 혐의의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고미술상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에 따라 16일 이 후불탱화를 영국사에 돌려주기로 하는 환부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7년)가 지났고, 장물인지 모르고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유씨의 승용차 안에서 조계종이 99년 발간한 <불교 문화재 도난백서>가 발견됨에 따라

장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유씨(장물취득죄)를 인정했다. 이 도난백서 129쪽에는 '영국사 영산회상도'의 도난 날짜와 경위, 작품 설명 등이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유씨 검거를 도왔던 문화재청 사법단속반 강진태 반장은 "도난범의 공소시효가 지나도 장물성이 인정될 때는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고 문화재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도 "잃어버린 성보도 결국은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다음 주쯤 검찰에서 돌려받는 대로 문화재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日式사찰 동국사 대웅전

등록문화재 64호로 지정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를 거쳐 국내에선 거의 유일한 한 일식식 사찰 건물인 군산 동국사 대웅전(사진)을 등록문화재 64호로 최근 지정했다.

1913년 일본에서 건축자재를 들여와 지은 동국사 대웅전은 당시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일식식 목



조기와 건물로,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에도(江戸)시대의 풍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로 등록되면 지방세(종합토지세와 토지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권형진 기자

"전쟁상처 치유법 배우고 싶어 왔어요"

이라크인 수아드 압둘카림 나눔의집 방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이라크인 압둘카림 씨의 만남. 23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앞마당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찾아줘서 고마워."

올해 초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이라크 전쟁 반대시위를 벌

이라크戰대 한국반전 평화팀 통역

폐허의 고향에 평화도서관 건립계획

였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등을 견학하던 중 압둘카림 씨는 역사적 체험을 위해 복원한 위안소 모형을 지켜보며 한때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곳 할머니들에게서 강인함을 느낍니다. 일본 정부에 10년 넘게 보상을 요구한 것도 그만큼 할머니들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라크에서 할머니가 '희해의 상징'인 것처럼, 평화의 몸짓으로 관용을 베푸는 할머니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는 길은 평화에서 찾았다는 압둘카림 씨. 그곳으로 돌아가면 폐허가 된 이라크 땅

에 작은 '평화의 도서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라크의 청년과 여성,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싶

다는 것이다.

"전쟁을 극복하고 나라를 어떻게 재건할 지 한국의 인성과 경험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사회가 안정되면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시민의 힘으로 복지 활동을 활발히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의 방문, 언어는 중요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앞마당의 '못 다 핀 꽃'이라 불리는 소녀동상. 오늘날, 이라크인 압둘카림은 '활짝 핀 꽃'이 됐다.

경기도 광주=김철우 기자

호법부의 폭력

한명우 (취재1부 차장)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21일 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승가학인연합 집행부의 한 사미가 최근 승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호법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호법부 한 관계자가 조사과정에서 발끝으로 무릎을 두 차례 정도 걷어찬 뒤 결재서류로 목 부분을 내리쳤고, 사미는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현고스님은 "사미에게 검찰 당

시 사미복을 착용하지 않아 교육원으로부터 '비규제 수계 1년 유예' 징계를 받았던 사미가 전승준 학술대회장에서도 사미복을 착용하지 않았고, 또 학술대회를 위해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등 사미 신분으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 조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호법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사표를 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은 사미가 너무 정치

적인 행동을 해 폭력을 자초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총무원 내에서 버젓이 폭력이 행해졌다는 점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 그런데도 호법부와 총무원은 쉬쉬하는 데만 급급해져, 폭력이 저질러진 데 대한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혹시 '맛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3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을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교과목	교수
· 법화사상· 반야사상·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선사상 · 불교미술 및교사상· 포교방법론	· 무전장스님(본대학부장)· 박종(동산불교대교수)· 문윤식(동국대교수)· 권탄중(금강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권기중(동국대교수)· 최종석(동국대교수)· 윤열수(문화재단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한경집(금강선원총장)· 김호기(동국대교수)	김형중(동대부교과부장), 심계중(동국대), 송찬우(승가대)
·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경도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최봉수(동국대교수)· 주명철(동국대교수)·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김상영(승가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 차차석(동국대교수)	이귀례(교정선생님), 신혜스님 등
		이예주(서울대교수)· 중요 무형문화재 27호, 승무보유자
		김익홍(전동국대), 법인스님
		최종남 (승가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 불교학과(100명)	· 불교를 전공 신청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3년 6월 2일 ~ 2003년 8월 2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 불교학과(100명)	· 불교를 전공 신청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3년 7월 1일 ~ 2003년 8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4시(우리춤학과) · 매주 수요일 오전10시30분(미술학과) · 매주 금요일 오후7시(팔리어학과)	통신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03년 8월 9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시암) 02) 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 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동산불교대학